호국본찰 범어사로 '호국영웅' 돌아오다

'故 이형술 하사 귀환행사' 성료

제1회 전몰장병합동위령재 현장
최고 예우 故 이형술 하사 귀환
국가보훈처, 범어사는 호국도량
유가족 및 참전유공자 50여 명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국가보훈처가 진행한 '호국영웅 故 이형술 하사 귀환행사'가 12월 4일 범어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봉행됐다.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의 구호처였던 범어사가 69년 만에 돌아온 호국영웅을 위해 다시 산문을 열었다.

국가보훈처가 진행한 '호국영웅 故 이형술 하사 귀환행사' 가 12월 4일 범어사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봉행됐다. 행사에는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과 총무국장 보운 스님을 비롯해 범어사 국장 스님들과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및 국가보훈처 직원, 유가족, 참전유공자, 보훈단체 관계자 등 50여 명이 동참했다.

1952년 4월 6일 범어사가 처음 진행한 전몰장병 합동위령재 현장인 범어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故 이형술 하사의 위패는 유가족 품에 전달됐다. 위패는 범어사 대웅전 아래 마련된 제단에 안치됐고 불자들은 헌화와 분향으로 호국영웅을 기렸다.

이날 국가보훈처 관계자들은 최고의 예우로 호국영웅 귀환을 기념하기 위해 범어사를 찾았으며 호국활동 주역인 불교계에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행사에서 의장병이 전달한 故 이형술 하사의 위패는 임장완(80) 씨가 받아 제단에 안치했다. 임씨는 이 하사와 함께 한국전쟁 당시 육군 8사단 10연대에서 함께 복무한 참전 전우다. 이어 유족들에게 이 하사의 신원확인통지서가 전달됐으며 경과보고가 진행됐다.

경과보고 후 내빈들의 헌화와 분향 및 6.25 참전 영웅기장 수여식이 이어졌으며 반야심경 봉독과 승무로 고혼의 넋을 기렸다. 마지막으로 위문품과 포상금을 유가족에게 전달하며 의식은 마무리 됐다.

범어사 주지 경선 스님은 먼저 "호국의 영웅 故 이형술 하사님을 정중한 마음으로 모시며, 그 영전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먼 거리와 시간을 거쳐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 주셨다. 긴 시간 동안 애끓는 마음으로 기다리셨을 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위로했다.

이어 스님은 "6.25 전쟁 당시 범어사는 피난민들의 의지처였고, 군 장병들의 구호와 치료를 자처했다. 특히 가장 치열했던 낙동강 전투에서 전사한 39분의 유해를 보제루에 안치한 이래 수년 간 전몰군경의 위패를 모시고 넋을 위로했다. 우리 불교는 호국불교정신을 면면히 이어왔다"고 강조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범어사는 낙동강 전투 당시 순국한 장병들이 안치되었던 유서 깊은 곳이자 국립현충원의 효시이다"며 "조국수호를 위해 불굴의 의지로 나라를 지킨 호국 영웅 이형술 하사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 투철한 사명감으로 치열한 전투 중에 안타깝게 사망했지만 대한민국 역사와 조국 속에 면면히 살아 숨 쉴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 하사는 결혼한 형을 대신해 1951년 6월 25일, 19세의 나이로 자원입대했다. 1951년 10월 11일 강원도 양구 백석산 지구 전투에 참전했다가 전사했다. 백석산 지구 전투는 전략적 요충지로 이를 탈환하기 위해 국군 2개 사단(7 · 8사단)이 공격작전을 수행한 곳이다. 유해는 2015년 9월 24일 강원 양구 백석산에서 발굴됐으며 남동생인 유족 이형삼 씨의 시료 채취로 DNA 검사를 실시, 최종 신원을 확인했다. 이 하사의 유해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예정이다.

코로나 한파에도 소외이웃 향한 세밑 보시 활발

통영불교聯 · 부산진구불교聯
대구 동화사 등 자비보시 눈길




사진 왼쪽부터 통영불교연합회 간편식 전달식, 통영 대성암 김장김치 전달식, 부산진구불교엽합회 백미전달식 사진.

코로나19 확산과 한파에도 세밑 보시가 활발히 이뤄져 가슴을 따뜻하게 한다.

통영불교연합회(회장 종묵)는 12월 6일 통영시 정량동 주민센터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난방유 및 간편식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은 통영불교연합회와 통영불교거사림, 보현사가 공동 주최했으며 통영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용화사 종묵 스님, 보현사 주지 묵원 스님, 연화사 도법 스님, 대성암 승원 스님, 연합회 회원 스님들과 안휘성 통영거사림 회장 외 회원 30여 명이 동참했다. 난방유는 총 4800리터가 32가구에 전달됐으며 라면, 참치캔, 과일, 발열내의 등을 담은 선물은 한 부모가정 및 조손 가정 18가구에 전달됐다.

통영불교사암연합회 회장 종묵 스님은 "코로나 기간에 춥고 배고픈 곳은 더 힘들 것이다"며 "오늘 나눔과 봉사가 따뜻한 손길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통영 대성암(주지 승원)도 12월 4일 경내에서 '제6회 자비의 김장김치 나누기' 를 진행했다. 김장 김치는 지역 소외 이웃 50세대에 전달됐으며 이날 김장에 필요한 배추 및 재료 등은 주지 스님과 신도들의 자발적인 나눔으로 마련됐다. 대성암 신도들은 배추 170포기와 국산 재료로 정성을 담아 김장했으며 아이스박스 50개에로 나눠 담아 무전동 동사무소에 전달했다. 김치는 무전동 동사무소를 통해 지역 소외 이웃에게 배달될 예정이다.

대성암은 코로나19로 인해 김장을 하기 전 많은 고심을 했다고 전했다. 매년 상반기에 진행해 왔던 청소년 백일장과 경로잔치는 자발적으로 취소하고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추운 겨울, 나눔을 위한 손길이 코로나 19로 인해 더 사라질까 염려했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나눔은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대성암 주지 승원 스님은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김장김치 나눔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오늘 김장은 신도들이 직접 키운 배추와 무이다. 건강을 기원하며 마련했으니 어르신들과 어려운 가정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진구불교연합회(회장 세운)는 12월 3일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에서 백미 전달식을 개최했다. 쌀은 10kg 40포대 총 400kg이며 전달식에는 부산진구불교연합회 총무 도원 스님과 중도불이선원 주지 지공 스님, 부산장애인총연합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쌀은 부산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부산광역시신장장애인협회, 부산광역시정신보건가족협회, 부산심장장애인협회 등 장애인 단체에 전달될 예정이다.

총무 도원 스님은 "회원 사찰 및 스님들이 십시일반 모았고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와 나눔을 위해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대구 동화사(주지 사요)도 12월 9일 동절기 이웃사랑 나눔 봉사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동화사 아래 학구마을 10가구에 500장씩 총5000장을 동화사 신도회 회원들이 주관하여 나눔 봉사를 하게 됐다. 나눔 행사에는 동화사 주지 사요 스님, 배기철 대구 동구청장, 동화사 국장소임 스님들과 장세철 신도회장 ,신도회 회원들이 대거 참석하여 따뜻한 겨울나기를 한마음으로 전했다.

복성산업개발(회장 박금태, 대표이사 김승하)은 12월 3일 서귀포시 서흥동 소재 일광그린아파트 준공식 현장에서 창립10주년 기념식 및 준공식을 열고 서귀포시 주민들을 위해 서흥동 장학금 500만원, 서귀포 장학금 500만원, 서귀포시 발전기금 1000만 원, 서흥동 노동자를 위한 자비의 쌀 10kg 200포대(1000만 원 상당) 등 총 3000만 원 상담의 장학금과 백미를 전달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태고종前 총무원장 도산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전북교구 재무국장 현진 스님, 무형문화재 지화 이수자 현담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복성산업개발 회장 박금태, 부회장 전문순, 대표이사 김승하, 사장 노명선 등 임직원, 서귀포 서흥동 관계자 사회복지 모금회 제주 서귀포 지사장, 서흥동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도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아파트 준공과 창립10주년을 축하하며 나눔을 실천해 주는 소중한 인연에 감사를 드린다" 며 "보다 복된 날이 되어 복성산업 개발기업이 사회에 귀감이 되는 회사로 더 발전하기를 기원한다" 고 당부했다.

㈜복성산업개발 박금태 회장은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올해, 이 곳 서귀포시에서도 회사의 경영철학인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 를 이웃 주민들과 함께 이루어 가고 싶다" 고 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 손문철 대구지사장
조동제 전북지사장 ·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신뇨엔, 상생 나눔 인재불사 나서다

12월 8일 동명대 발전기금 1천만원 전달



재단법인 신뇨엔이 동명대에 발전기금을 전달하고 인재불사 원력을 이어갔다. 신뇨엔 상임이사 정경 국원은 "인재불사는 상생을 위한 나눔이며 스승이신 원주님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재단법인 신뇨엔(상임이사 정경)은 12월 8일 동명대 대학본부 경영관 3층에서 발전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발전기금은 총 1000만 원이며 코로나 기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전달식에는 신뇨엔 상임이사 정경 국원, 사무국장 영준 국원, 박남규 동명대 부총장, 장재진 학생처장이 참석했다.

정경 국원은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은 함께 상생을 해 나가야 한다"며 "학교 뿐만이 아니라 지금 종교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나눔은 어려워도 멈추면 안 된다는 믿음으로 찾게 됐다"고 말했다.

박남규 부총장은 "신뇨엔의 나눔은 오늘 처음이 아니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나눔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서 무엇보다 감사하다"며 "신뇨엔의 사회 공헌과 나눔은 사회의 모범이 될 것이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재단법인 신뇨엔은 2018년부터 꾸준하게 인재불사를 위한 발전 기금을 동명대에 전달하고 있다. 발전 기금은 학생들의 해외 불교지역 탐방 및 장학금으로 활용됐으며 불교동아리 발전을 위한 지원금으로 회향됐다.

장재진 학생처장은 "동명대에 공식적인 불교동아리가 승인되고 활동한 것은 2018년 부터였다"며 "신뇨엔을 비롯해 스님들의 관심으로 25명의 학생들이 역량을 키우고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고운사, 비댓골 풍력발전 건설 반대 결의

12월 9일 고운사 본말사 반대결의문 발표



조계종 제16교구본사인 의성 고운사(주지 등운) 본말사 대중이 12월 9일 고운사 인근 비댓골 풍력발전단지 건설 반대 결의문을 발표했다.

의성 고운사는 9일 고운사 화엄문화템플관에서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과 본말사 스님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운사 인근 비댓골 풍력발전단지 건설 반대를 결의했다.

이날 고운사 본말사 대중들은 "고운사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전통사찰로 동법 제3조에 의해 보호받고 있으며 보물 2점 지정문화재 2점 등을 보유하고 있는 신라천년고찰"이라며 "고운사는 화엄사상이 확립되고 전파되는 역사성을 지닌 매우 중요한 사찰이며, 고운사 주변은 생태적으로 우수한 보전가치가 뛰어난 산림보호지역(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깽깽이풀과 노루귀 등 식물보호구역이다. 또 지역민의 종교적 귀의처, 휴식힐링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먼저 고운사와 주변 생태의 가치에 대해 밝혔다.

이들은 이어 "고운사 인근 건설 예정인 풍력건설단지는 풍력단지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소음과 저주파로 불과 500m 거리인 고운사와 주변 생태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수행환경과 문화재 피해가 심각할 것이며 산림보호림 파괴와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서식지 생태 파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생업 종사자들의 삶의 근간도 흔들린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고운사 본말사 대중들은 "제16교구 본말사 스님들은 환경부와 문화재청에 비댓골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대해 강력한 반대 뜻을 전하고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 박영애 영주지국장

동곡당 일타 대종사 21주기 추모재

12월 6일 은해사서 개최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12월 6일 동곡당 일타 대종사 열반 21주기 추모다례재를 경내 육화원에서 봉행했다. 이날 다례재에는 동화사 회주 의현 스님, 은해사 회주 법타 스님, BBS대구불교방송사장 법일 스님, 은해사 관장 돈관 스님, 동곡문도회 대중 스님, 이연화 은해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삼귀의, 반야심경 봉독으로 시작된 다례재에서 은해사 회주 법타 스님은 "이 엄중한 시기에 동참한 문도 대중 스님은 일타 대종사 스님을 뛰어 넘는 대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행장소개, 종사열반과 함께 일타 대종사의 육성법문을 경청하며 가르침을 되새겼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해인사 고불암, 부처님 진신사리 극락보탑 제막

12월 6일 제막식 거행… 1381명 동참


고불암은 12월 6일 대웅보전 앞에서 극락보탑 제막식을 봉행했다.

해인사 고불암에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한 극락보탑이 모습을 드러냈다. 고불암(감원 심우)은 12월 6일 대웅보전 앞에서 극락보탑 제막식을 봉행했다.

제막식은 코로나 19로 인해 간단하게 진행됐으며 △명종5타 △삼귀의 및 반야심경 △경과보고 △제막 △감사패 수여 순으로 이어졌다.

감원 심우 스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명실상부 적멸보궁"이라며 "불자들의 기도와 정진을 위한 도량으로 거듭나겠다"고 인사했다.

부처님 진신사리는 2017년 5월 25일 고불암 前 감원 적광 스님이 스리랑카 컨디 지역에 위치한 불치사에서 부처님 치아사리를 이운했다. 2017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사리탑 불사를 마무리 했으며 설판은 정원구(대구) 불자가 희사했다. 사리탑 불사를 위해서는 불자 5800명이 동참했으며 복장 불사를 위해서는 1381명의 불자가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낙두 경남지사장